



**부활절 수요 끝나면서 수급불균형 예고
- 노계도태 통한 난가안정화 기여해야 -**

◆ 동향

4월 4일로 다가선 부활절 특수로 3월 들어 난가는 두 차례 상승세를 보이며 수도권 기준 개당 127원까지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설 명절이후 계란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산지 할인거래폭(D/C)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있어 시세상승은 어렵게 생산원가선에 근접한 수준이다. 부활절 특수가 위치한 만큼 산지에서의 물량확보가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봄철 강설과 꽃샘추위로 일부 작황부진으로 인한 과채류가격의 인상에 따른 계란대체수요가 생기고 있어 3월말까지 난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축통계에서 나타났듯이 노계수수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3월초 난가가 한차례 인상됨에 따라 도태되어야 할 노계군들이 다시금 생산연장에 들어가면서 난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다소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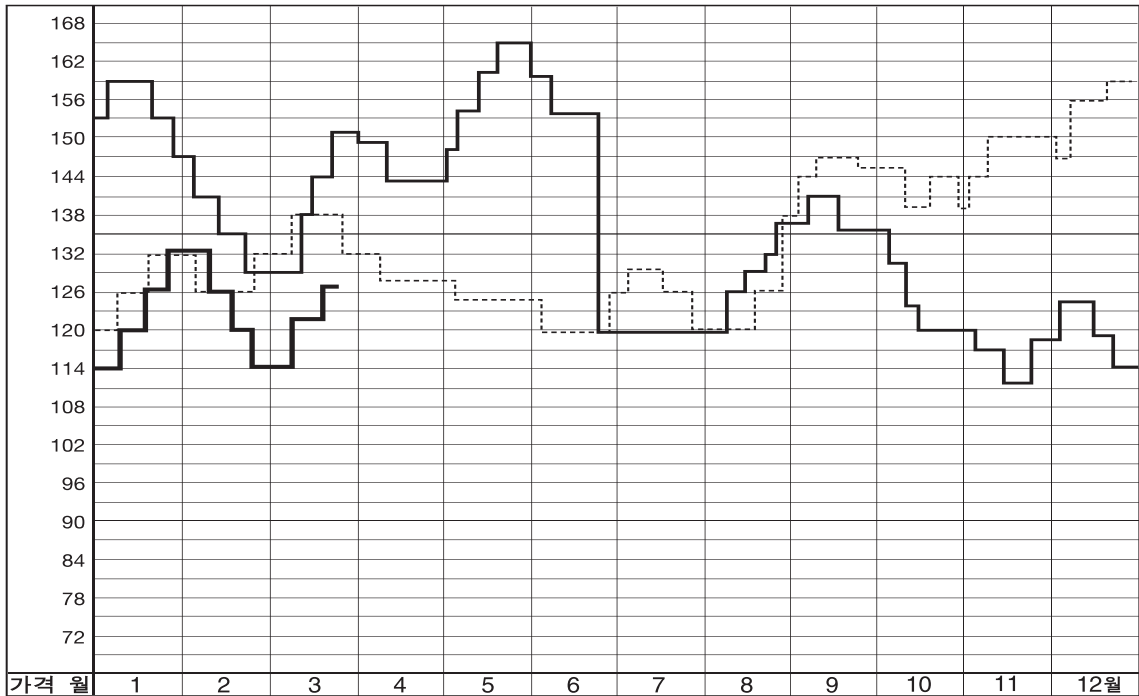
지난 2월 산란중계 입식수는 33,896수로 전년대비 29.8%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산란실용계분양수는 2,338천수로 전년대비 19.2% 감소하였다. 종계 DB자료에 따르면 산란중계사육수는 12.9% 증가하였고, 이중 육성계는 전년대비 75%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종란생산계군은 전년대비 2% 감소하였다. 당분간 실용계 단가는 강세가 예상되나 금년 하반기 생산잠재력이 높은 상황이다. 2월 육추사료 생산량은 23,925톤으로 전년대비 19.5% 증가하였다. 산란사료와 산란중계사료 또한 각각 156,432톤과 4,699톤으로 전년대비 8.2%, 138.2% 증가하였다.

금년 2/4분기 계란생산에 주로 영향을 미칠 지난해 4/4분기 산란실용계분양수는 8,940천수로 전년대비 14.9%증가해 신계군의 계란생산 가담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전망

부활절 특수를 지나면서 난가 흐름은 다소 어렵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노계군의 도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큰알 생산이 빠르게 증가할 여지가 있으며, 특히 상기자료에서와 같이 신계군까지 가담하면서 과잉생산이 심화될 수 있다. 물론 급식수요와 봄철 날들이시즌이 다가오면서 계란 소비를 신장시킬 것으로 보이나 신계군의 생산증가분이 이를 앞지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엇보다 도태를 통한 난가안정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지난해 유통되는 계란품질이 불량하다는 소비자 단체의 조사결과와 부화 중지란을 유통시킨 축산업자가 적발되면서 계란에 대한 품질문제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계란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저품질 계란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노계환우로 인한 저품질 계란생산을 지양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계란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을 갖추어 나가야 하겠다.



※ 2009.6.22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30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08-- 2009- 2010 -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중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7	39,300	2,592	24.6	176.5	1,142	1,035
	2008	55,000	2,857	28.3	176.2	1,050	1,262
	2009	0	2,895	22.6	163.9	1,050	1,553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	2007	25,600	2,188	23.7	157.1	1,150	1,025
	2008	35,928	2,787	26.9	169.8	1,100	1,287
	2009	48,300	2,894	20.1	144.5	1,050	1,374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3	2007	68,000	2,461	24.2	168.0	1,150	1,054
	2008	43,100	3,151	24.8	162.3	1,100	1,349
	2009	43,500	3,294	25.1	168.1	994	1,420
	2010						
4	2007	62,500	2,581	25.7	158.9	1,150	867
	2008	0	3,469	29.6	170.2	1,100	1,283
	2009	109,368	2,808	27.2	164.5	917	1,455
	2010						
5	2007	15,000	2,454	28.4	172.8	1,094	936
	2008	91,100	3,460	27.7	149.3	1,122	1,237
	2009	0	2,519	26.5	157.5	850	1,597
	2010						
6	2007	0	2,194	25.6	150.1	1,050	891
	2008	95,500	3,046	28.3	145.8	1,100	1,202
	2009	71,300	2,956	26.8	156.2	892	1,448
	2010						

7	2007	30,500	2,486	26.3	148.3	1,022	824
	2008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2009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0						
8	2007	49,300	2,493	24.0	153.9	1,000	973
	2008	79,000	2,985	27.0	138.9	1,069	1,245
	2009	60,800	3,154	23.8	156.6	983	1,279
	2010						
9	2007	96,400	2,494	24.2	157.2	1,000	1,110
	2008	18,000	2,682	28.5	156.8	1,050	1,468
	2009	56,000	2,598	27.1	173.3	1,041	1,386
	2010						
10	2007	23,200	3,039	27.3	164.2	1,028	1,069
	2008	39,000	2,473	29.4	164.9	1,050	1,430
	2009	77,028	3,051	27.0	160.3	1,050	1,248
	2010						
11	2007	29,760	2,709	28.0	163.1	1,050	1,126
	2008	37,000	2,240	24.3	152.2	1,050	1,482
	2009	10,580	3,076	26.0	162.0	1,050	1,167
	2010						
12	2007	10,200	2,236	28.9	175.1	1,050	1,254
	2008	30,000	3,069	25.4	178.1	1,050	1,536
	2009	11,000	2,813	26.5	180.6	1,083	1,212
	2010						
계	2007	449,760	29,838	311.6	1,945.7	1,074	1,014
	2008	584,128	35,296	329.5	1,911.2	1,078	1,336
	2009	517,576	35,260	304.6	1,944.4	990	1,361
	2010						

※2008년 1월부터 중계입식수에 브라운너 포함.

※2008년 4월 산란중계는 32,600수 분양되었으나 시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량 살처분됨.

※2009년 11,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